정보

개요
곡명: Piano Concerto No. 3 in C minor, Op. 37
작곡가: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성립: 1796년 첫 구상, 1799–1800년 총보 일부 작성, 1803년 초연용 완성
초연: 1803년 4월 5일, 빈 Theater an der Wien의 Akademie. 작곡가가 독주했다.
장르 ·범위: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전곡, 세 악장

IMSLP: Piano Concerto No. 3, Op. 37

Wikipedia: Piano Concerto No. 3 (Beethoven)

Ludwig van Beethoven의 Piano Concerto No. 3 in C minor, Op. 37은 피아노 독주와 관현악이 함께 연주하는 세 악장 협주곡이다 . 전곡은 Allegro con brio, Largo, Rondo. Allegro의 순서로 진행한다. Beethoven은 1803년 초연에서 직접 독주했지만 , 당시의 피아노 파트와 이듬해 출판된 파트보의 피아노 파트는 완성 단계가 다르다. 이 차이를 알고 악장을 따라가면, 제 1악장의 카덴차와 종악장의 짧은 연결구가
어떤 종류의 연주자 선택을 허용하는지도 분명해진다 .

출판 정보와 자료

이 협주곡의 성립을 한 해로 묶기는 어렵다. 1796년에 Beethoven이 남긴 구상에는 이미 C단조 협주곡의
카덴차 부근에서 팀파니를 쓰겠다는 생각이 적혀 있다. Henle 비평판을 편집한 Hans-Werner Küthen은 베를린 Staatsbibliothek에 남은 자필 총보 Mus. ms. autogr. Beethoven 14에서 서로 다른 세 잉크의 작업 단계를 구분한다. 1800년 무렵에는 제 1악장이 대체로 갖추어졌지만 제 2악장은 초기 형태였고, 1803년 공연을 준비하면서 제 2악장을 고치고 제 3악장을 처음 적었다. Beethoven은 그 단계의 원고에 Concerto 1803이라고 표시했다.

1803년 4월 5일 Theater an der Wien의 연주회에서는 이 협주곡과 함께 제 2교향곡, 오라토리오 Christus am Ölberge가 처음 연주됐다. 관현악 파트는 연주에 쓸 수 있도록 적혀 있었으나, 자필 총보의 독주부에는
양손의 음이 빠짐없이 기보되어 있지 않았다. Beethoven-Haus는 작곡가가 독주부 일부를 즉흥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한다. 자필 총보의 실제 기보 상태를 고려하면, 초연을 ‘빈 악보를 보며 전곡을 즉흥 연주한 공연 ’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다.

제자 Ferdinand Ries는 1804년 7월 19일 Augarten 연주회에서 별도로 정리된 피아노 파트로 이 곡을 연주했다. 같은 해 11월 빈의 Bureau des Arts et d’Industrie가 파트보를 초판으로 발행했고, 작품은
프로이센의 Louis Ferdinand Prinz von Preußen에게 헌정됐다. 초판의 판각에 사용한 필사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관현악부는 자필 총보와 초판이 일치하지만 , 독주부는 자필의 마지막 수정 단계와 교정 전후 상태로

전해지는 초판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 현행 비평판이 초연 당시의 독주와 같은 판본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소요 시간

전곡은 약 34분이다 . 악장별로는 제 1악장 약 16분 , 제 2악장 약 9분 , 제 3악장 약 9분을 예상할 수 있다 . 실제 녹음에서는 제 2악장과 종악장의 길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기도 한다 . 예컨대 Artur Schnabel의 1933년 녹음은 세 악장이 대략 15·11·8분이고 , Kristian Bezuidenhout의 2017년 녹음은 대략 17·9·9분이다 . 따라서 악장별 수치는 공연 계획을 위한 대략적인 길이로 보아야 한다 .

## 편성

독주 *Piano*와 *Flutes* 2, *Oboes* 2, *Clarinets* 2, *Bassoons* 2, *Horns* 2, *Trumpets* 2, *Timpani*, *Strings*로 편성한다 . 독주 피아노와 팀파니의 관계는 제 1악장 말미에서 특히 구체적인 역할을 얻는다 . 반면 느린 악장에서는 독주 피아노를 중심으로 현악기와 목관악기의 작은 조합이 번갈아 나타난다 . 악기 종류와 수량이 정해져 있어도 현악 인원과 악기 시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독주와 합주의 균형은 달라진다 .

# 세 악장의 진행

## I. *Allegro con brio*: 관현악이 제시한 재료와 독주의 진입

제 1악장은 관현악이 긴 제시부를 연 뒤 피아노가 들어온다 .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Jan Swafford와 Melbourne Symphony Orchestra의 David Garrett은 시작 부분에서 상행 음형 , 하행 음계 , 북소리를 닮은 짧은 리듬을 구분해 설명한다 . 관현악 제시부가 진행되는 동안 이 재료들은 목관의 응답과 다른 선율을 만나며 악장의 규모를 넓힌다 . 피아노는 그 뒤에 상승하는 음계로 등장한다 . 그래서 첫 독주 진입은 이미 충분히 들린 관현악 재료를 단순히 되풀이하기보다 , 같은 재료가 독주 악기의 기교와 함께 새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 .

짧은 북소리 리듬은 전개부에서도 거듭 변형되지만 , 실제 팀파니가 그 리듬을 두드리는 순간은 악장 끝까지 미뤄진다 . 긴 독주 카덴차가 끝나면 팀파니가 조용히 리듬을 맡고 피아노가 그 곁에서 다시 합주에 들어온다 . 1796년 메모가 ‘카덴차 때 팀파니 ’를 떠올렸다는 사실과 완성된 제 1악장의 이 대목을 함께 보면 , 카덴차는 독주만으로 끝나지 않고 팀파니와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는 종결부로 이어진다 . 악장의 도입에서 들린 리듬이 실제 타악기의 소리로 나타나면서 제 1악장의 출발과 종결도 연결된다 .

## II. *Largo*: E장조의 독주 선율과 작은 합주

느린 악장은 C단조와 거리가 먼 E장조에서 피아노가 먼저 선율을 제시한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의 Herbert Glass는 약음기를 낀 현악기가 그 선율을 받치고, 이어 피아노의 분산화음 위로 현악기와 목관악기의 선율이 놓이는 진행을 설명한다. 중간에서는 플루트와 바순이 서로 주고받는 선율을 피아노가 분산화음으로 감싼다. 앞 악장의 관현악 제시부와 달리 독주자가 먼저 길을 열고 소수의 악기가 이에 응답한다는 점이 이 악장의 출발 방식이다.

Swafford는 이 악장을 A–B–A로 파악하면서 , 첫 선율의 G♯과 마지막 현악 화음의 높은 G♯에 주목한다. 다음 악장의 피아노는 같은 높이를 A♭으로 받아 시작한다. 두 음의 실제 높이는 같지만, E장조의 G♯을 C단조로 돌아오는 종악장의 A♭으로 새로 적으면 앞 악장의 끝이 다음 악장의 출발과 연결된다. 조성이 멀리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두 악장 사이의 음 하나에도 남아 있는 셈이다.

III. Rondo. Allegro: 되돌아오는 주제와 C 장조의 종결

종악장은 피아노가 C단조 론도 주제를 내면서 시작한다. 이후 주제가 되돌아오는 사이에 서로 다른 삽화가 놓이고, 클라리넷이 알리는 다른 선율과 주제를 푸가처럼 다루는 대목도 나타난다. Glass의 해설은 이런 진행에서 A♭장조와 E장조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짚는다. E장조는 앞선 Largo의 조성이기도 하다. Swafford가 설명한 G♯·A♭의 음명 전환은 여기에서 더 넓은 조성의 이동으로 이어진다.

악장 말미의 짧은 피아노 연결구가 지나면 2/4의 Allegro가 6/8 Presto로 바뀌고 C장조로 끝난다. Presto는 별도의 네 번째 악장이 아니라 론도 내부의 마지막 속도와 박자 지시다. 제 1악장의 C단조, 제 2악장의 E장조, 다시 C단조로 돌아온 종악장이 최종적으로 C장조에 이르는 순서는 악장 간 조성과 독주자의 역할 변화를 함께 보여 준다.

카덴차가 바꾼 독주 텍스트
초연의 카덴차와 오늘 흔히 연주되는 Beethoven의 자필 카덴차는 같은 자료가 아니다. Beethoven-Haus가 소개하는 1802–03년 스케치북에는 초연 당시 제 1악장 카덴차의 즉흥을 준비한 초안이 있다. 반면 Henle의 피아노 리덕션에 실린 긴 자필 카덴차는 파리 Bibliothèque nationale의 별도 원고 Ms. 26을 바탕으로 교정한 것이다. 후자의 존재만으로 1803년 초연에서 Beethoven이 그 내용을 연주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1804년 Ries의 공연은 또 다른 선택을 보여 준다. Ries가 1838년에 남긴 회고에 따르면, 그는 Beethoven 에게 카덴차를 써 달라고 했지만 작곡가는 그에게 직접 써 보라고 하고 교정을 제의했다. Beethoven은 Ries의 초안 가운데 위험하다고 여긴 구절에 대안을 제시했으나 , Ries는 어려운 원안을 연주했다. 수십 년 뒤의
회고라는 성격을 감안해도, 이 일화는 제 1악장 카덴차가 연주자 자신의 구상과 작곡가의 검토가 만나는
자리였음을 말해 준다. 반대로 제 2·3악장의 짧은 연결구까지 모두 같은 의미의 자유 카덴차로 묶을 수는 없다. 1804년 초판을 검토한 Arthur Schoonderwoerd는 즉흥 선택이 열린 곳을 제 1악장 카덴차로 한정하고, 다른 악장의 연결 부분은 기보된 음악과 구별한다.

초판에는 건반 음역이 다른 5옥타브용과 5½옥타브용 피아노 파트가 함께 실렸다. 독주 음역의 차이는 후대 연주자가 어느 악기와 어느 텍스트를 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자필 총보, 초판, 후대의 자필

카덴차는 모두 Beethoven과 관계된 자료지만, 작성 시점과 연주에서 맡은 기능은 각각 다르다.

연주자가 고른 악기와 합주의 크기
Schoonderwoerd는 2008년 Ensemble Cristofori와의 녹음에서 5옥타브용 피아노 파트와 Anton Walter 모델의 복제 포르테피아노를 선택했다. 그의 음반 해설에는 현악기를 바이올린 두 명, 비올라 두 명, 첼로와 더블베이스 각 한 명으로 줄인 편성이 적혀 있다. Schoonderwoerd는 그 규모에서 악기 사이의 균형과
대위적인 성부를 들리게 하려 했다. 다만 이 선택이 1803년 Theater an der Wien의 실제 현악 인원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독주자가 관현악의 tutti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도 이 녹음의 특징이다. Schoonderwoerd는 당시 연주 관행에 비추어 피아노가 합주 리듬에 가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Küthen은 이 작품 초판 독주부에 적힌 tutti의 축약 표기가 독주자의 계속된 동시 연주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AllMusic의 James Manheim은 Schoonderwoerd의 작은 편성이 성부를 선명히 드러내는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 앞선 tutti에서 피아노가 들리면 제 1악장에서 오래 준비한 첫 독주 진입의 효과가 약해진다고 평했다. 이 차이는 옛 악기를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악보의 축약 표기와 관현악 제시부의 극적 간격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다.

Kristian Bezuidenhout는 Freiburger Barockorchester 및 Pablo Heras-Casado와 녹음한 음반의 해설에서 현대 비평판과 초판의 아티큘레이션 ·강약 표기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독주 음형도 수정했고, 슬러의 길이, 박절감, 트릴과 빠르기에 관한 익숙한 관행을 다시 살폈다. 2017년에 녹음해 2022년에 발매한 음반은 제 1악장 카덴차와 종악장 연결구에 각각 ‘Bezuidenhout / Beethoven’이라는 공동 표기를 남긴다. 독주자가 어느 부분에 개입했는지를 감추지 않은 표기다. Manheim은 종악장 초반의 짧은 카덴차형 연결부를 크게 늘인 점을 이 연주의 두드러진 차이로 지목했다. BBC Music Magazine의 Jessica Duchen은 독주의 즉흥적인 움직임과 Largo의 여린 시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 관현악의 날카로운 음색에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평은 독주자의 즉흥적 선택과 관현악의 소리가 각각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933년 Artur Schnabel과 Malcolm Sargent가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와 남긴 녹음도 이 작품의 연주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Christopher Howell은 제 1악장 관현악의 분명한 출발과 Schnabel의 카덴차를 높이 보면서, 당시 녹음 음질과 독주 ·지휘의 호흡에 따른 제약도 함께 지적했다. Schnabel의 녹음에서 제 1악장 도입부가 뚜렷하게 분리되는 방식은 앞서 본 Schoonderwoerd의 tutti 참여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두 연주는 카덴차만이 아니라 피아노가 처음 등장하기 전의 시간도 협주곡 해석의 일부임을 들려준다.

주요 자료

Beethoven-Haus Bonn, 협주곡 3번 작품 기록 과 1804년 초판 파트보 소장 기록

Hans-Werner Küthen, G. Henle Verlag의 총보 비평판 서문 과 피아노 리덕션 서문

Beethoven-Haus Bonn, 카덴차 특별전 해설 과 자필 스케치 HCB Mh 71

Jan Swafford, Boston Symphony Orchestra 작품 해설, David Garrett, Melbourne Symphony

Orchestra 프로그램, Herbert Glass, Los Angeles Philharmonic 작품 해설

Wiener Symphoniker의 악장과 길이 자료

- Arthur Schoonderwoerd, Alpha Classics □□ □□ □ James Manheim, AllMusic □□ □□
- Kristian Bezuidenhout, Harmonia Mundi □□ □□ , James Manheim, AllMusic □□ , Jessica Duchen, BBC Music Magazine □□
- Naxos Historical□ Schnabel·Sargent □□ □□ □ Christopher Howell, MusicWeb International □□

---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4:19 UTC by □□□
Updated 2026-10-04 10:04:19 UTC by □□□